

남편이 사랑과 존경을 받치는
이내 이희호 선생님

31.1.24

'97-3-31

내가 아는 이희호 선생님

박 영 숙

이 선생님과 나의 첫 만남은 1959년 봄 무렵 그가 한국 YWCA연합회의 총무로 부임해 왔을 때이다. 나는 그 때 대학생부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1962년 5월에 그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결혼하여 YWCA를 떠나게 되어 내가 그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YWCA연합회 총무의 전·후임자 사이이다.

우리가 알고 지나온 40개 성상동안 나는 이 선생님을 직장에서의 상사로, 여성운동의 선배와 동역자로, 같은 신앙인으로, 70년대 후반부터는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인한 남편들의 수난을 통해 양심범 가족의 일원으로, 민주화투쟁을 함께 한 동지로 그리고 80년대 말에서 몇 년간은 나의 상사의 아내로 그의 여러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탓으로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내가 아는 이희호 선생님의 면모를 몇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하려고 한다.

①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

이 선생님의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는 일찍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중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윤숙 선생님, 김정례 전 장관 등과 함께 <여자청년단>을 구성하여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운동가로서의 첫 활동이다.

그가 여성운동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2년 이태영 박사님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활성화된 <여성문제연구소>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법개정운동을 통해서였다. 그 개정내용은 헌법상에 보장되어있는 남녀평등의 문제로서 이의 장애요인인 민법상의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족법개정운동의 태동이었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가족법개정은 37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그때의 여성들의 감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여성의 오랜동안의 숙원이었던 가족법개정이 아내인 이희호 선생이 간사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여성문제연구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은 남편인 김대중 총재가 이끌고 있었던 평민당이 주도적으로 선도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우연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법개정운동의 시작과 끝에 이들 부부가 한 몫을 해낸 것이다. 이들 부부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아내는 여성운동의 선각자로 그리고 남편은 여권주의자(Feminist)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 선생님은 1954년에서 58년까지 미국의 램버스 대학과 스칼렛 대학교의 두 대학에서 사회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일시 이화대학교에서 사회학 강사를 거쳐

YWCA운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의 중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현재는 남편이 정치권의 중심인물이라는 이유로 여성운동의 전면에서는 후퇴하였으나 여성지위향상에의 관심은 식을 줄 몰라 제도권에 대한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있다.

② 민주화 역군으로서의 면모

내가 YWCA에서 이 선생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내가 느낀 그에 대한 인상은 투사적인 기풍이 엿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위 통념적인 여성다움이 감돌고 있었던 YWCA 분위기에서는 이색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의 YWCA 식구들은 이 선생님이 여성청년단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에 내 남편이 관련되면서 나도 험난한 민주화운동대열에 끼게 되었다. 이 사건의 주도자는 문익환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사건 연루자의 한 분이었던 김대중 총재의 정치력 말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탄압의 양상은 연루자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밖에 있던 부인들로 구성된 양심범가족모임에서는 하느님께 매달리는 기도회 개최를 비롯한 탄압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도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생님의 타고난 불의에 대한 불굴의 투지는 누구보다 뛰어나게 발휘되었다. 말수가 적은 그는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타고났다기보다는 오랜동안의 역경 속에서 다져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저력에 의지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불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그가 혹자의 눈에는 강성이미지로, 무뚝뚝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회로애락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사형선고를 받은 남편을 생각하는 아픔과 불안을 혼자 삭여야만 했던 뒷사람으로서 주변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덜어주고 돌보아주며 위로 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의 외길을 걷고 있는 남편에게 약한 마음을 보일 수도 있으련만 이 선생님은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며 남편보다 더 강한 의지로써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낸 민주화의 역군이였다.

1983년 1월 미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용감한 여성상(Valiant Woman Award)”, 1983년 5월 이 선생님의 모교인 스칼렛 대학에서의 “탑 상(Tower Award)” 그리고 1984년 1월 북미연합에서 “1984년 인권상(The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 in Korea)”를 수상한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서의 그의 역할이 탁월했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③ 현처, 양모로서의 면모

이 선생님은 그의 저서 <나의 사랑 나의 조국>에서 당신은 결혼 후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기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특히 탄압 받는 야당정치인의 아내로서 고난의 연속
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한 여인의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62년 5월 이 선생님과 김 총재의 결혼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그 때를 회상하면 절로
웃음이 난다. 그것은 이 선생님이 한 남자의 꿈이 꿈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이 도
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한 그에게 YWCA 이사들을 비롯한 주변동료친
구들이 그 결혼을 극구 말렸었던 일이 생각나서이다. 어떤 이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었다.
말리는 이유로서는 결혼상대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거듭했을 뿐만 아니라 1961
년 선거에서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5.16으로 인하여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감옥행이
된 전망이 불투명한 정치인이라는 점, 부인과 사별한 사람으로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어머님, 와병중인 누이동생 그리고 어린 두 자식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이
선생님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국내외에서 수학한 교육배경 그리고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로
서의 앞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무엇 때문에 저버리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곡한 권유도 그의 결혼할 결심을 꺾지 못했다. 그는 그가 술회한대로의
앞날을 예측하고도 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을 후회 없이 35년간 살아왔다. 보람을
느끼면서 말이다.

험난한 길을 걸어온 야당정치인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현처 그리고 세
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존경받고 사랑 받는 양모로서의 역할을 누가 보아도 유감없이 해
낸 것이다. 1987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년상공인들로부터 “이 해의 탁월한 여성상”
을 받은 것을 비롯 국내사회단체들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것은 그의 현처양모로서
의 모습이 공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내의 동역자로서의 지원은 정말 값진 것으로서 그러한 아내가 없었던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의 독실한 기독교정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
는 남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김 총재는 그의 아내 이회호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
했던 것이다.

남편의 옥중서신에서 그는 “존경하는 당신”으로 호칭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
은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사랑에 더해서 존경을 받고 있는지 질문해보면 그의 현처양모상
을 짚어 볼 수 있다.

④ 신앙인으로서의 면모

이 선생님은 의사인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던 어머니께서 1913년 결혼식
을 서울 수포교회에서 거행한데서 알 수 있듯이 돈독한 기독교 가정의 6남 2녀의 장녀로 모
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의 신앙의 돈독함이 공적으로 처음 인정받은 것은 1940년 3월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고 재학 중 “종교상”을 받은 데서이다. 역경으로 이어져온 그의 탄생 이상을 흔들림 없이 지탱 해준 것은 그의 고백대로 신앙의 힘이였다.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를 포함 네 번에 걸친 남편의 죽음의 고비, 수시로 닥쳐왔던 남편과 자식과 권속들의 체포, 구금, 고문, 연금, 미행, 망명 등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그가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였다. 그는 “1972년부터 1982년까지를 회고해보면 그렇게도 외로웠고 잊혀진 곳에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사실은 그때처럼 하느님의 깊은 은총의 세계를 체험한 때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떨리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한다.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의 위로만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적을 두고 있는 대한감리회 창전교회에서 주일학교 장년부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교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성실함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남편이 구금중인 1977년 11월 창전교회로부터 “모범교사상”을 받았으며 세계성령클럽에서는 제5회 “세계성령봉사상(국내부문)”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그는 오늘도 그 직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선생님은 모태로부터의 기독교신자로서 그리고 남편은 1956년 영세를 받은 카톨릭 신자로서 각자의 신앙을 유지한 채 결혼함으로써 당신들의 결혼은 에큐메니컬 결혼이라며 우리 나라에서의 에큐메니컬운동의 선구자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매일 매순간을 시편 23편의 성경말씀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로써 살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토록 그의 삶은 기독교신앙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점철되고 삶을 마감하는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⑤ 남편 사랑, 조국 사랑

이회호 선생님은 1992년 펴낸 <나의 사랑, 나의 조국>에서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내가 남편을 동역자로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사랑은, 아니 우리의 사랑은 곧 조국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 두 분이 사랑하는 조국은 우리 모두의 조국이다.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이룩한 통일공동체가 되고 모든 국민이 살맛 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회호 선생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일부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의 남편의 그늘에 가려서 그의 독자적인 여성운동가로서의,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 그가 희망하고 있는 평등사회의 성취를 한시도 잊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건승을 빈다.

내가 아는 이회로 425년

백영숙 2월 28일

이회로 425년과 나는 1013이리시 여명리를 보니 후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니 이회로 425년과 함께 동리의식을 갖게 된 것은
이리로 오면 동안의 길은 남쪽에서와 합류를 계통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생각된다.

이회로 425년의 나의 첫 번째는 1959년 봄에 2가 한글 TWC로
여명리의 총무로 부임해 왔는데이다. 나는 그때 36(37)살로 단장하고
있었다. 1962년 5월 2가 김대중 중산회의 총재로 경호하러 TWC로
떠나게 되었는데 대항행복 강연했다 내게 2가 뒤를 이여기 데를
우리는 5월 8일 총무의 425년이다. 그러나 우리 안고 지내온
세월은 40개 생애에 가깝다.

그동안 나는 이회로 425년을 집안에서와 함께한 것으로, 여명리의
동리에서, 같은 생애에서, 70년대 후반부터는 3.1 민주구국 425년
으로 인한 남산의 수산을 통해 양심적 가족 단위로 2가 민족회복을
함께한 동리 단위로 2가 여러 모습을 거느리면서 옛날과 같은
위기에 있었다 라고도 나는 425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글에서 내게 아는 이회로 425년을 이회로 425년으로 구분해서 알리
려고 한다.

① 여명리 동리회의 의 의의

이회로 425년의 여명리 동리회의 의의는 이회로 425년과 김구 425년
의 영향으로 민족운동 365년에 싹트었다. 그것은 동국상선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중에 2가 모은 425년, 이회로 425년, 김구 425년과 함께
함께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명리 425년>을 구상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는데서
집착할 수 있다.

2가 여명리 동리회의 ^{원인} 분기 활동은 이회로 425년과 425년과 425년에
함께한 계기를 활용하여 <여명리 425년>의 여명리 회장을
위한 바 개령 운동을 통해 했다. 그 회장 내역을 현상상에
배정되어 있는 바 개령 등의 문제를 이의 장대론으로 민생상의
남대지배를 청정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개령 바 개령 운동의
태동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37(38)년의 기쁘고 새로운
동안 수 년은 여명리의 개령의 노력 끝에 드디어 1989년 12월
36기 총회에서 성취 되기에 이르렀다. 그때의 여명리의 개령은
지금은 425년이다.

애수의 슬픔이었던 가족배개라는 252쪽을 다보면 이리혹스스함이
간신히 심부름을 잡았다고 있다 (애수블레 연구회)가 222 2436년의
금회총대비제는 남다른 김대중총재가 이끌고 있었다. 또다음이 쿠로로
이제 이르러서로 다들 한가한 이무리 생강해로 기이하는 수온이라
생강해라, 가족배개라는 252쪽의 252쪽 끝에 이를 모두가 한몫을
해낸 것이다.

이러한 일은 1954년에서 58년까지 미국의 랩에스 대학 리스카렛
대학에서 두 대학에서. ^{한편} 사회학 전공을 배워온 귀족 학에
있어 이 대학에서의 사회학 강의를 거쳐서 사회운동에 뜻을 둔
유니버시티 학생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하게 되고 있다. 한편은
앞서 말한 리스카렛의 중심 인물이라는 이유로 학생운동의 리드로서는
취해 리스카렛의 학생 지위 리스카렛에 관한 관심은 식물을 물론 리스카렛에 대한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학생운동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다.

②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

내가 YWCA에서 이사장직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내근적인
그에 대한 인상은 후속적인 기쁨이 옛날것처럼 새로기워진다.
소위 흥행적인 애상리듬이 감동과 있었다 YWCA 문화기에서 이
인 것이었다. 그 당시의 YWCA 친구들은 이사장직이 애상리듬이란
흥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946년 3.1 민족구국운동시대에 내남군이 관건으로 되고
나로 해방하는 민족운동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이 시대의
주요한 운동은 북조선이 옛날의 강국은 이 시대의 주권의 한 부분이
있어 중립제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외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민족구국운동에 대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구국에 끼어
상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자생된 양심법기풍 모음이 되는 한심에
대항하는 기조와 개혁을 이룩한 관습에 대한 리구려의 비평으로
있는 지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교도들은
이리나 불어에 대한 불복의 후로는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서 일하리라.
말하기 쉬운 것은 그의 리구려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데 우리는 리구려가 모르는 어떤 동안의 영감속에서 리구려인
것이란 보는 것이 옳기로 보였다. 우리들 가운데서 그의
양심적 노력에 의거하여 리구려 해해나갈 인연이
결함이 아니라 불어에 대한 후생을 이어 갈 수 있다. (2)

이러한 고가 품격의 물품은 감당하기 어렵게 되므로 한도를 정하여,
다시 회계연간으로 나누어 같이 거래할 때는 원상회복에 의한 수익금
의 적립을 위하여 동등이 부여하고 또한 귀거래 수익에 대한 처리에서
수익금으로 주어지고 있는 납부금을 상환하는 다른 수입을 흔히 상환
가능한 처리에 있어서 고가품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
하는 것.

고흥의 외곽을 걷고 있는 남도리에서 약한 비를 보았으나
이후엔 많은 오차로 남도리를 경계하며 멀리 강한 의리로 리지의
북을 해낸 인구의 영군이 있다.

1983년 1월 미국연립여성연합회 에서 "용감한 여성상" (Valiant Woman Award), 1983년 5월 이스타버그의 모건 스퀘어 대학에서 "탑상" (Touler Award) 그리고 1984년 1월 북미연합회 에서 "1984년 인권상" (The 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로 수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권의 대중"에서 그의 역할이 각광을 받았음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frac{1}{2}$ 초, 양분 3/4의 112g

이와같은 2의 3차 $\langle$ 내세로 내세로 $\rangle$ 에서 당국은 7월 15일
 대생으로부터 이같이 한 실수를 삼가 부탁하고 있다. 특히 관공은
 야당 36차의 대세로 2의 3차의 연속이와 같이 순회하고 있다. 각 관공으로
 보면 3월 15일 대생의 실수이와 같이 2의 3차로 있다. 3월 15일
 1962. 3. 15

1962년 5월 이시영씨와 김홍래의 결혼을 지켜본 한사람으로서
그때를 회상하며 정로 웃음이 난다. - 그것을 이시영씨가 한남리의
꿈이 꿈으로 끝이 않게 하기위해 당시의 크리야 한리수 가문으로
이미 결혼하기로 굳게 마음 먹은 그에게 스승 이시영을 비롯한
친척들을 친구들이 그 결혼을 극구 반대하자 오히려 생각났는지
어찌하는 눈치로써 한남리에 행차해. 문제는 이윽고서는 결혼상대인
이미 종혁의 딸 시거에서 남자로 거듭났을뿐 아니라 1961년 2월 이후
드디어 종혁의 딸이 된 시거씨는 5.16으로 인하여 소위로써 하리 못하게
감옥행이 된 것만이 불행중의 다행인이라는 점, 그리고 시영의
시영으로서 종혁과 시거의 아파남, 이시영중의 누이종남 그리고 어린 두 자식
을 거느린 시거는 것이었다. 이시영씨가 지니고 간행한 책 ③

2011/12/1

107

32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모두의 존엄을, 서로 돕기 위해 함께
몸이 굽혀진 심부름꾼들, 동행공중해가 되기를 위해 우리 모두는 간절히
노력해 왔다.

이제라도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일찍이 우리들이 이념/계급/성별을
겪은 것처럼, 이념/계급의 그늘이 사라지고, 2의 여성운동가로써,
사회운동가로서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향해, 이념/계급/성별의 선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념/계급으로
정신적으로, 지능을 키운다.

우리가 알고 지나는 40대 여성들만 해도 이 선생님을 직장에서의 상사로, 여성운동의
배와 동역자로, 같은 신앙인으로, 70년대 후반부터는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인해 남한에서
수난을 통해 양심범 가족의 일원으로, 민주화투쟁을 함께 한 동지로서 그리고 80년대 말에서
몇 년간은 나의 상사의 아내로 그의 여러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탓으로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내가 아는 이화호 선생님의
면모를 몇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하려고 한다.

①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

이 선생님의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는 1952년 12월 12일경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에 귀국하여 일하는 중으로 부친을
전생일, 김정희 전 장관 등과 함께 <가족법개정운동>을 전개하여 전후로 전후를 막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운동가로서의 첫 출발이다.

그가 여성운동가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2년 이태형 학사님이 사범고시
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완성화된 <여성문제연구회>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법제정운동을
통해서였다. 그 계기내용은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남녀평등의 문제로서 이의 중요인인
헌법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족법개정운동의 계기였다는 것은 실력
의 여지가 없다. 가족법개정운동은 37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각고의 노력
에 드디어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때의 여성들의 참치는 지금까
지도 생생하다.

여성화 운동기간의 숙원이었던 가족법개정이 아내인 이화호 선생이 간사로서 설무를 담
당하고 있던 <여성문제연구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은 남편인 김
대중 총재가 이끌고 있었던 평민당이 주도적으로 선도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우
연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법개정운동의 시작과 끝에 이들 부부가 한 몫을 했던 것이다. 이들
부부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아내는 여성운동의 선각자로 그리고 남편은 여권주의자
(Feminist)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 선생님은 1954년에서 58년까지 미국의 캘버스 대학과 스칼렛 대학교의 두 대학에서
사회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일시 이화대학교에서 사회학 강사를 거쳐